

02

지방 소도시에서의 영상문화 활성화 사례 : 일본 나라시를 중심으로

정 인 선 박사

동경대학교

지방 소도시에서의 영상문화 활성화 사례 :

일본 나라시를 중심으로

발표자 : 정인선



나라 (奈良)시 개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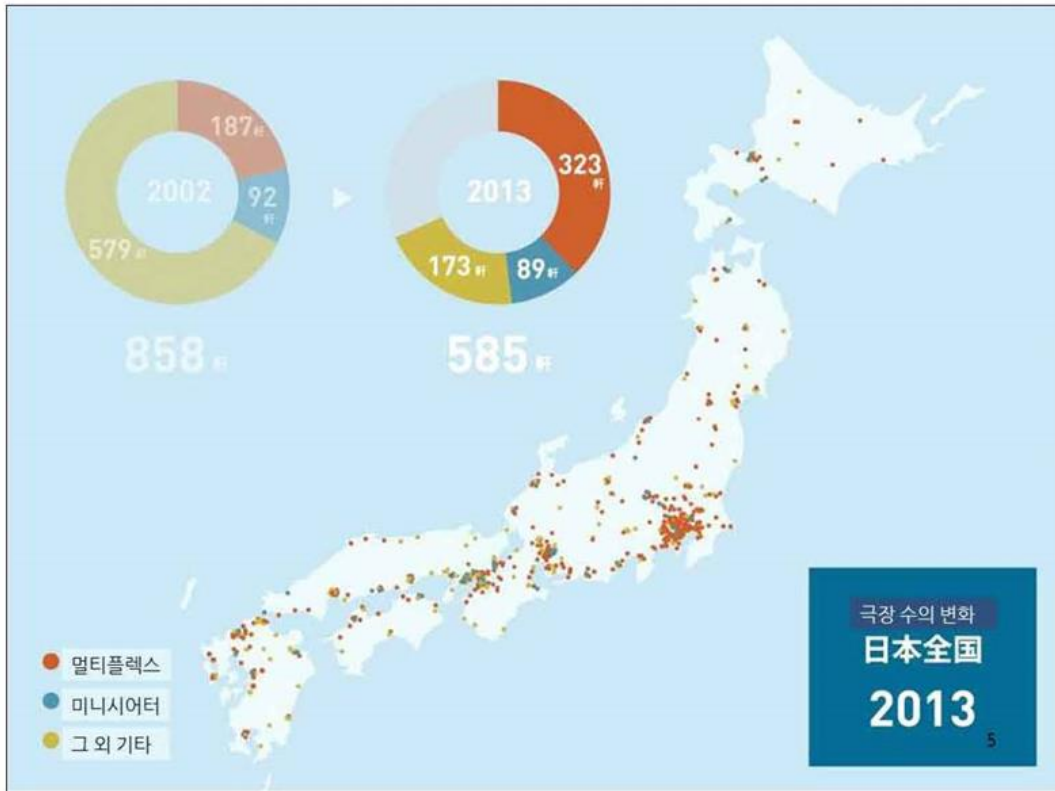
- 인구 : 36만 여명
 - 연간 관광객 1400만 명의 관광 도시
 - 나라현 현청 소재지
 - 오사카, 교토 인접
- 영화관이 한 곳도 없음

A. 일본의 영화관 공백 지역

〈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회의(日本コミュニティシネマ会議)
자료(2015)에서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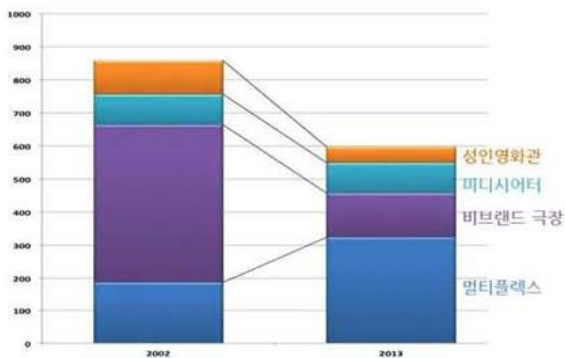






시민 영화관의 증가

-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영화관 공백 지역이 증가
- 도시와 소도시간의 문화 향수 격차가 확대



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회의(日本コミュニティシネマ会議) 자료(2015)에서

시민 영화관의 증가

- 다만, 미니시어터 수의 변화는 크지 않음.
- 폐관한 극장을 커뮤니티 스페이스로 재개관하는 사례가 증가.
- 마을 만들기 협의회, NPO 등의 공익법인 등 시민이 주체가 되어 ‘지역 활성화’, ‘마을 만들기’, ‘커뮤니티 강화’ 등을 목표로 재개관
- 2000년 이후 새롭게 문을 연 비멀티플렉스 극장 26곳 중 10곳이 NPO법인에 의해 탄생한 시민 영화관, 혹은 사회적 기업에 의해 운영 (2014년 기준)

9

어느날 남편이 영화관을 사왔다 : 도요오카극장(豊岡劇場)의 경우

- 호고현 북부의 도요오카: 인구 8만의 소도시
- 도요오카 극장은 1927년 개관.
- 당시 거리에는 4개 극장이 있었으나 2012년 도요오카가 폐관하면서 극장 공백 지역이 됨.
- 폐관의 가장 큰 원인은 디지털 시네마 도입 비용 문제



10

어느날 남편이 영화관을 사왔다 : 도요오카극장(豊岡劇場)의 경우

- 폐관 후 이시하라라는 영화 애호가에게 의해 극장이 인수, <도요게키 신생 프로젝트팀> 결성
- 2013년 9월, <일본 커뮤니티시네마 회의>에서 극장 재생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발표, 큰 호응을 얻음.
- 호고현립대학 경영학부 교수 및 학생들이 모여 지역 내에서의 영화관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나감
- 지역의 예술가들, 시네마클럽 등이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여 공간 설계를 함께 구상
- 공간 수리 비용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
: 110명에 의해 271만 6000엔이 모금 (기부자의 80%가 도요오카시 주민)
- 디지털 영사기 2대의 구입은 정보 보조금을 받아 1200만엔에 도입.
- 2014년 재개관

11

어느날 남편이 영화관을 사왔다 : 도요오카극장(豊岡劇場)의 경우

-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서 낮에는 카페, 밤에는 바. 작은 홀은 이벤트에 이용. 로비에서는 여러가지 워크숍을 실시
- CINEMACTION : CINEMA+ACTION



12

어느날 남편이 영화관을 사왔다 : 도요오카극장(豊岡劇場)의 경우



시민영화관 모델 : 니이가타현 시네윈도

- 1985년 니이가타 현의 명화좌 라이프의 폐관 후 재개관 운동
- 시민 참가, 시민 출자 모금으로 시작.
- 1985년 5월, <니이가타 시민영화관 건설 준비회> 발족
- 회원수 5000인을 목표로 1인 1만 엔의 회비를 모금
- 같은 해 12월 <니이가타 시민영화관 시네 윈도우> 개관.



- 입장료 수입과 연회비로 경영. 회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됨.
- 2012년에 2천만엔을 목표로 디지털 시네마 설비 자금 프로젝트 실시. (1932만 엔을 모금).

14

B. 나라국제영화제

15

영화제의 시작

- 나라 출신의 감독 가와세 나옴이(河瀬直美)의 오랜 숙원에 의해 2010년 1회 나라국제영화제를 개최 (격년)

제1회
영화제

2010년

예산 : 2000만엔

- 사업비 및 인건비로 나라현에서 1300만엔 지원 (1회 한정)

제2회
영화제

2012년

예산 : 2800만엔

- 나라시에서 1000만엔 지원

16

영화제의 전개

제3회 영화제

2014년
예산 : 3500만엔

제4회 영화제

2016년
예산 : 4000만엔
- 시의회와 나라시 시장의 갈등에 의해 시에 의한 영화제 보조금
전액 삭감

- 현재, 영화제의 인건비 및 경상비에 대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
혀 없는 상황
- 문화청, 일본국제교류기금, J-LOP(일본 콘텐츠 해외 전개 보조금), 기업
메세나 협회 등에서 사업비를 보조 받음.

17

후루사토 납세 (ふるさと納税)

- 사업비 보조 이외에 후루사토 납세 제도를 통해 매년 약
500만엔의 지원을 받고 있음

후루사토 납세 제도

2008년 일본에 도입

자신이 선택한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한 경우,
기부액 중 2천 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소득
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되는 제도

*현재 국내에서도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
위해 '고향 사랑 기부제'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

18

후루사토 납세 (ふるさと納税)



-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게 할 지 주민이 직접 선택하게 하겠다는 취지
- 문화 부문에의 기부가 가능

19

후루사토 납세 (ふるさと納税)

- 기부처를 직접 선택 가능. 지역 농특산물을 기부의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나라국제영화제와 같은 문화, 스포츠, 공연 활동 등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.
- 후루사토 초이스 <https://www.furusato-tax.jp>

なら国際映画祭への支援



奈良の魅力を世界に発信する映画祭を支援します。

※寄附金の2分の1をなら国際映画祭の支援に活用し、残り2分の1は市の文化事業に活用します。

나라 지역의 기부 선택지 중 하나인 나라국제영화제 “기부금의 절반은 나라국제영화제 지원에, 남은 반은 시 문화 사업에 활용”

バンビヤス奈良への支援



奈良唯一のプロバスケットボールチーム「バンビヤス奈良」を支援します。

※寄附金の2分の1をバンビヤス奈良の支援に活用し、残り2分の1は市のスポーツ振興事業に活用します。

20

후루사토 납세(ふるさと納税)

• 2016년 나라시의 기부금 활용(희망용도 기부금)

희망용도	건수	기부 금액 (엔)	사용 상세
문화재 보존 및 활용 사업	2,754	82,009,001	문화재 보호 활동 단체 지원, 매장문화재 긴급 조사 사업, 나라 공예 후계자 육성 사업 등
관광진흥사업	851	20,963,501	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, 나라사슴 보호 육성, 환경 정비 사업 등
보육 사업	1,927	48,143,500	보육원, 유치원, 어린이집 발달 지원 순회 상담, 어린이 의료비 조성 확대, 피학대 아동 대책 강화 등
교육사업	586	17,310,500	왕따 문제 대책 지원, 왕따 대응 교원 설치, 초·중학교 도서 구입, 학교 도서관 사서 파견 등
자연 환경 사업	659	18,275,000	저공해차 도입 촉진 사업, 온난화 대책 사업 등
나라국제영화제 지원	282	10,348,000	나라국제영화제 개최 보조금(694만 엔), 문화진 흥단체 사업 보조 (849만 엔)
팜비서스 나라/나라 클럽 지원	201	5,562,000	「Top Sports City 나라 보조 (370만 엔), 나라시 홈타운 스포츠 촉진 파트너 사업 (295 만 엔)」
기타 나라의 매력 증진 사업	1,198	35,920,500	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, 공가 대책 사업 등
합계	8,458	238,532,002	

자료 : 나라시 홈페이지 <http://www.city.nara.lg.jp/www/contents/1464673390052/index.html>

21

나라국제영화제의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 활동

- 영화제는 격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화제가 열리지 않는 해에 여러 가지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 활동이 이루어짐
- 사무국에는 직원 3명과 이사장 1명이 상근

1. 시네마 테크

- 나라시 내에는 영화관이 없음. 차로 20분 거리의 다른 시 에 멀티플렉스가 있음.
- 예술 영화를 보려면 교토나 고베 등으로 나가야 함.
- 월1회 3일간(첫 주 금, 토, 일) 이동형 상영회 형태로 운영 (상설 공간이 없기에 이동 상영 형태)
- 2013년에 첫 시작

22

나라국제영화제의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 활동

1. 시네마 테크

- 주 상영 공간은 나라여자대학의 강당, 나라마치센터(시 소유 주민센터), 지역 호텔의 시설
- 월 200-300명의 관객이 시네마테크를 통해 예술영화 감상



나라국제영화제의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 활동

- 영화의 상영에는 게스트를 초청. 게스트는 주로 영화의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전문인이 초청



나라국제영화제의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 활동

2. 야외 상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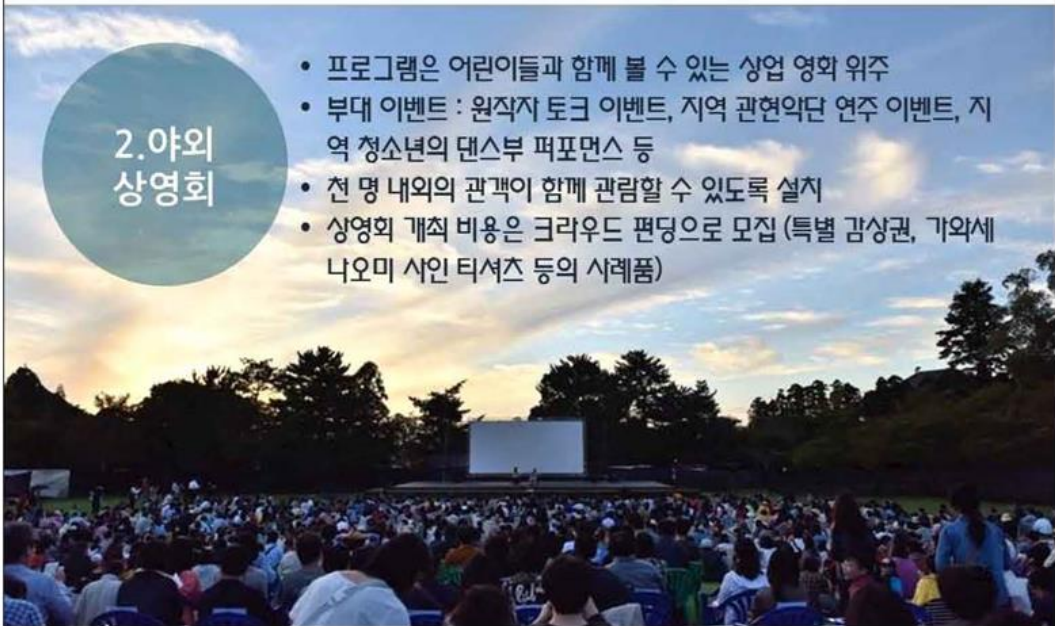
- 2015년부터 시작
- 호시조라 상영회 (星空上映会)
- 2015년에 영화제 홍보를 겸해 영화제가 없는 해에 이벤트를 개최하여, 큰 호응을 얻음.
- 2016년에 영화제 기간 중에도 실시
- 나라공원에서 개최



나라국제영화제의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 활동

2. 야외 상영회

- 프로그램은 어린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상업 영화 위주
- 부대 이벤트 : 원작자 토크 이벤트, 지역 관현악단 연주 이벤트, 지역 청소년의 댄스부 퍼포먼스 등
- 천 명 내외의 관객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설치
- 상영회 개최 비용은クラウド 펀딩으로 모집 (특별 감상권, 가와세 나옴이 사인 티셔츠 등의 시제품)



나라국제영화제의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 활동

3. 영상 제작 워크숍

- 2014년부터 실시
- 나라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 제작 워크숍
- 나라시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구해 나라시 초등학교에서 워크숍 참가자를 모집



나라국제영화제의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 활동

3. 영상 제작 워크숍

- 초등학교의 강당을 빌려 사흘간 집중적인 워크숍 실시
- 장비는 애플사로부터 아이패드를 협찬 받음
- 기와세 나옴 감독이 직접 강사로 아이들을 지도



나라국제영화제와 지역사회의 연계

- 지역 주민의 영상 문화의 증진, 영상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



29

나라국제영화제로부터의 시사점

- 영화 관람 체험의 사회적 측면 : 시네마테크 활동 등에서 보듯이, 영화의 감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화복지의 차원에서, 또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이 함께 영화를 감상함으로 지역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성의 증진이라는 사회적 측면을 함께 가짐.
- 그런 점에서 영화관이라는 공간은 지역 사회에서 매우 중요. 다만, 나라국제영화제의 사례에서 보듯이 반드시 '극장'이라는 물리적 공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님.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상영 활동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.
-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는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. 지역의 영상 문화 활성화는 단지 지역 주민이 영화를 많이 관람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관람이 공공적이고 다분히 의식적인 행위로서 일어날 때 이루어지는 것임.

30

감사합니다

31